

<서평>

Prophetic Rhetoric: Case Studies in Text Analysis and Translation

(Ernst Wendland, Xulon Press, 2009)

김창대*

1. 들어가는 말

에른스트 R. 벤틀란트(Ernst R. Wendland)가 저술한 『예언서의 수사학: 텍스트 분석과 번역을 위한 사례 연구들』(*Prophetic Rhetoric: Case Studies in Text Analysis and Translation*[2009])은 성경 번역자에게 성경 본문의 수사적 장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증거하는 책이다.¹⁾

본서의 목적은 성경의 효과적인 번역을 위해서 텍스트 언어학적 입장에서 본문의 수사적 장치에 대한 이해의 중요함을 밝히는 데에 있다. 그래서 먼저 예언서 본문에서 예언자들이 수사적 장치를 통해서 본문의 단락 구조를 어떻게 구분하고, 어떻게 본문의 클라이맥스를 보여주었는지를 연구한다. 여기서 수사적 장치의 예로는 생략, 이미지, 아이러니, 조소, 과장법, 어휘의 반복, 인용, 다른 책에 대한 암시(intertextual allusion), 직접화법, 감탄조의 말(호격, 명령어, 감탄사), 접속사 없이 시작하는 문장(asyndeton), 어순의 도치 등을 들 수 있다.²⁾ 특별히 벤틀란트는 어휘의 반복은 단락의 경계를 구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한다.³⁾ 이와 같은 단락의 경계들을 통해 의미의

* 안양대학교 교수, 구약학.

1) 서평자는 박사 학위 논문을 위해 저자의 다른 글에서 많은 도움을 받은 터라, 본서에서 수사적 장치에 대한 저자의 주장과 내용이 한층 더 세련되고 발전된 것을 볼 수 있었다. Ernst R. Wendland, *The Discourse Analysis of Hebrew Prophetic Literature: Determining the Larger Textual Units of Hosea and Joel*, Millen Biblical Press Series 40 (Lewiston: Edmin Mellen, 1995) 참조.

2) Ernst R. Wendland, *Prophetic Rhetoric: Case Studies in Text Analysis and Translation* (Xulon Press, 2009), 59.

3) 벤틀란트는 일정한 어휘가 단락의 초두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단락의 시작을 알리는 것을 *anaphora*라고 부르고, 일정한 어휘가 단락의 끝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서 단락의 끝을 알리는 것을 *epiphora*라고 부른다.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어느 부분에서 본문의 절정(peaks)이 있는지를 독자에게 제시한다는 논리다.

이런 관찰을 기초로 본서는 성경 본문의 저자가 본문을 매개로 해서 독자나 청중에게 전달하려는 내용(content)에 주목한다. 벤틀란트는 저자가 전달하는 내용을 화행론(speech act theory) 방법론을 사용하여 분석하는 듯하다. 그래서 본문이 의사소통 행위(a written text of communicative action)라는 전제 속에서 내용을 행위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내용(content)을 텍스트 행위를 통해 일차적으로 저자가 독자에게 전달하려는 목적(illocutionary force)으로 이해한다. 이 목적에는 권고, 훈계, 심판 선포, 위로 등이 포함된다. 더 나아가 벤틀란트는 본문이 의사소통 행위를 핵심 내용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독자에게 의사소통의 효과(communicative effects)를 주어 반응을 이끌어 내는 수사적 기능(rhetorical function)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따라서 오늘날 성경 번역의 방향은 본문의 수사적 장치를 통해서 어떻게 내용이 부각되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성경 번역에서는, 저자가 독자에게 어떤 심미적 호소를 하고 있고 독자에게 어떤 반응을 유도하고 있는지, 본문의 수사적 기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벤틀란트는 성경 번역자는 본문을 수용언어(Target Language)로 번역할 때, 본문의 수사적 효과를 전달하기 위해 본문의 문예적 구조와 형태(artistry)뿐만 아니라 내용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아름다운 심미적 특성(aesthetic feature)을 재현하고, 음성학적 반복과 같이 독자들에게 끼치려는 영향들(rhetorical impacts)을 반영한 번역 방법을 제안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온 번역본을 벤틀란트는 소위 문학적-웅변적 번역(literary-oratorical version)으로 명명했다.⁴⁾

서평자는 본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장별로 요약한 다음, 마지막으로 벤틀란트의 성경 번역 방법이 주는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며, 그의 성경 번역 방법론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경 번역에 어떤 함의가 있는지를 평가 형식으로 논의할 것이다. 하지만 때로 장별을 요약할 때, 필요한 경우에 나름대로 평가를 간헐적으로 덧붙일 것이다.

2. 주요 내용 요약

4) Ernst R. Wendland, *Prophetic Rhetoric*, 379. 또는 다른 곳에서 벤틀란트는 이를 “oral-rhetorical, literary structural”로 부른다.

2.1. 제1장: 요엘서의 수사학

1장은 요엘서의 수사적 특성들을 살펴서 그 결과를 어떻게 성경 번역에 반영할지를 다룬다. 먼저 벤틀란트는 요엘서 전체의 구조를 두 부분으로 나누고, 전반부(1:1-27)와 후반부(2:18-3:17)가 어떻게 패럴 구조를 이루는지를 살핀다. 그에 의하면 단락의 경계를 정하는 문제에서 성경 번역자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수미쌍관(inclusio), 교차대구(chiasm), 두어반복(anaphora, 단락 초기에 일정하게 등장하는 문구), 결구반복(epiphora, 단락 끝에 일정하게 등장하는 문구), 그리고 전사반복(anadiplosis, 단락 끝과 그 다음 단락의 시작에 나오는 동일한 문구)이라고 요약해서 설명한다.⁵⁾ 또한 그는 언약과 관련된 어휘와 모티프가 3:16-17에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요엘서 전체의 흐름에서 주제적 절정(thematic peak)을 이룬다고 주장한다.

그 다음으로 요엘서에서 두 개의 특정 단락(2:1-11과 3:9-17)을 골라서 각각의 단락에서 문예적 특성(artistry)과 수사적 기능(rhetorical function)이 무엇인지를 고찰한다. 여기서 문예적 특성이란 요엘서 본문이 취하는 형태로서, 요엘서가 어떤 아름다운 구조를 이루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인상이 강하다. 먼저 예술적 특성을 다룰 때, 단락을 구분하고, 단락의 흐름에서 어떤 부분이 구체적으로 클라이맥스를 이루는지를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예를 들어, 2:11의 경우처럼 접속사 “키”(כי)가 평행적으로 계속 반복될 때, 그것은 주제적 절정을 이루는 신호가 된다는 것을 제시한다. 비슷하게 3:9-17 단락에서 주제적 절정은 3:17이라고 말하고, 그 근거로 그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공식이 갑자기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서평자의 입장에서 볼 때, 벤틀란트가 단락 안에 의미상의 절정을 뜻하는 것이라고 제시하는 증거들이 한편으로 자의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물론 2:11의 경우처럼 빈번한 평행법의 등장은 단락의 절정을 나타낼 수 있다. 하지만 3:17의 경우처럼 갑작스럽게 “하나님을 알다”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것이 의미상의 절정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자의 주관이 어느 정도 개입된 판단이다. 좀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메시지의 절정을 포착하고 구별할 수 있는 수사적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서평자의 사견으로 3:17이 단락의 절정을 이루는 것은 와우 접속사에 연결된 완료형이라는 동사 체계로 시작하기 때문일 수 있다고 본다.⁶⁾

5) Ernst R. Wendland, *Prophetic Rhetoric*, 19.

6) Robert E. Longacre, “Weqatal Forms in Biblical Hebrew Prose: A Discourse-modular Approach”, Robert D. Bergen, ed., *Biblical Hebrew and Discourse Linguistics* (Winona Lake: Eisenbrauns, 1994), 50-95 참조.

이어서 본서의 저자는 요엘서에 나오는 메뚜기/군대/농산물 수확의 은유적 이미지가 어떻게 유기적 관계 속에서 발전되는지 살핀다. 저자에 의하면 요엘서의 메뚜기 재앙은 악인을 벌하기 위해 하나님이 보낸 군대로서 종말에 하나님이 수확이라는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결론으로 요엘서의 구조(문학적 형태)와 이미지라는 수사적 장치들은 독자에게 반응을 유도하려는 수사적 기능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번역자는 이와 같은 구조와 이미지를 통해 본문의 저자가 추구하려고 했던 수사적 기능을 수용언어를 통해 요엘서를 읽는 독자에게도 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2.2. 제2장: 오바댜서의 수사학

2장에서 저자는 먼저 오바댜서의 구조가 1-10절, 11-14절, 15-21절이라는 삼중 구조로 되어 있음을 밝히고, 왜 그런 구조를 가지는지 그 수사적 근거들을 제시한다. 여기서 논쟁점은 11-14절을 한 단락으로 정하는 문제다. 많은 주석자들은 오바댜서의 구조를 1-9절, 10-14절, 15-21절로 보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벤틀란트는 11-14절은 앞의 단락에 명시한 폭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 단락으로 묶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11-14절을 한 단락을 묶어주는 표식들(bounding markers)을 고찰한다. 더욱이 11절에 등장하는 문구들(예루살렘이 약탈되었다는 내용)은 앞의 1-10절에 속한 세부 단락들의 초두에 반복적으로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일종의 아나포라), 11절은 새로운 단락의 시작을 알린다고 설명한다.

서평자는 이 부분에서 약간 의문을 제기하고 싶다. 단락의 시작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아나포라의 경우, 벤틀란트가 너무 그것을 남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단락의 경우도 대단락과 소단락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단락의 시작을 알리는 문구나 표현들을 사용한다는 것이 더 정확하기 때문이다.⁷⁾ 그래서 절(strophe)의 시작을 알리는 문구가 연(stanza)의 시작을 알리는 문구로 기능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벤틀란트는 11-14절의 단락에서 주제적 핵심(thematic center)은 13절이라고 말하고, 그 근거로 11절에 사용되었던 어휘가 반복되고, 강조적 용법으로 언급된 대명사(הַהֵן הַהֵן “감 아타”)가 등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이런 점

7) H. van Dyke Parunak, “Some Discourse Functions of Prophetic Quotation Formulas in Jeremiah”, Robert D. Bergen ed., *Biblical Hebrew and Discourse Linguistics* (Winona Lake, Ind.: Eisenbrauns, 1994), 489-519 참조.

에서 벤틀란트는 단락의 절정을 위한 수사적 장치들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더 나아가서 오바다서 전체에서 17절에 중요 단어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구절이 오바다서의 절정(thematic peak)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벤틀란트가 주제적 절정(peak)이라는 말 외에도 주제적 핵심(thematic nucleus), 그리고 극적인 절정(dramatic peak)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본서를 읽는 독자들을 당황하게 한다는 점이다. 이 점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 의미상 주제적 핵심은 본문의 저자가 강조하려는 내용이고, 극적인 절정은 발단-전개-절정-해결이라는 극적 구조에서 감정적 절정을 이루는 부분을 뜻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주제적 핵심은 단락의 구조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으로서 예를 들어 동심원 구조에서 핵심을 이루는 가운데 부분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인다. 벤틀란트는 이와 같은 주제적 절정, 주제적 핵심, 그리고 극적인 절정은 서로 겹칠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좀 더 세분화된 설명이 필요하다.

벤틀란트는 오바다서의 구조는 오바다서의 내용의 흐름을 명확하게 해 준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하고, 독자의 지정의에 어떤 충격을 주려고 했고, 독자로부터 어떤 반응을 유도하려고 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고 말한다. 한 마디로 본문의 구조라는 수사적 특징이 중요한 수사적 기능을 한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성경 번역자는 원어(Source Language)인 성경 언어에서 드러난 단락 구분을 수용언어(Target Language)에서 과감하게 명시적으로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구체적으로 수용언어에 있는 연결 어구나 강조 어구를 사용하여 단락의 구분을 보여주고, 어느 부분에 메시지의 강조점이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벤틀란트는 자신의 이런 번역을 “시적(또는 웅변적) 번역”(poetic-or oratorical-rendering)이라고 명명했다.⁸⁾

2.3. 제3장: 나훔서의 수사학

3장에서 벤틀란트는 나훔서의 수사적 구조를 관찰하고, 나훔서의 구조를 통해 메시지의 핵심이 니느웨의 심판이 아니라 당시 유다 백성들을 향한 위로에 있음을 보여주려고 시도한다. 이 과정에서 본서는 단락의 경계를 위해 어휘의 반복(아나포라, 에피포라, 또는 아나디플로시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한다. 또한 단락 안에서 중요한 어휘들이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단락에 응집력을 키워주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다. 그 외에 나훔서에 사용

8) Ernst R. Wendland, *Prophetic Rhetoric*, 64.

되는 수사적 장치들로 은유적 표현, 직접화법, 수사 의문문 등을 열거한다. 특별히 두운(alliteration, 특정한 자음이 연속적인 단어들에서 계속 반복되는 현상)과 유음(assonance, 특정한 모음이 연속적인 단어들에서 계속 반복되는 현상), 그리고 음성학적으로 유사한 발음 등을 통해 독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려는 시도들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생략(ellipsis), 접속사 없는 문장(asyndenton), 그리고 어순의 도치(verbal shift) 등은 저자가 전달하려는 내용에 긴장감과 흥분을 덧붙여 주는 기능을 한다고 말한다.

벤틀란트는 나훔서를 전반부(1:1-15)와 후반부(2:1-3:19)로 나누고, 전반부는 다시 A(1:1)-B(1:2-8)-C(1:9-15), 후반부는 A(2:1-13)-B(3:1-19)로 세분화된다고 말한다. 특별히 2:1-13과 3:1-19는 두 단락의 경계 사이에 전사반복(anadiplosis) 현상이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벤틀란트는 나훔서의 주요 주제적 절정(major thematic peak)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1:15의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그 이유로 이 구절에서 수사적 장치들이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이 부분에 중요한 핵심 어휘들의 등장, 접속사가 없는 문장(asyndenton), 그리고 유사한 발음의 사용 등이 나타난다고 말한다. 2:1-13 단락의 경우, 극적인 절정은 2:8-10으로 여기서도 어느 정도 수사적 장치들의 집중 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한다. 한 예로 두운과 유음이 2:10에 등장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서평자의 생각에 단순한 수사적 장치의 집중이 절정을 뜻한다는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어휘의 등장도 다분히 주관적 판단에서 나올 수 있고, 따라서 절정을 이루는 부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사적인 구조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동심원 구조에서 핵심은 가운데라든지, 패널구조에서 핵심은 마지막이라든지 나름대로 도식을 정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예외가 어떤 경우인지를 살핀 다음에 절정을 이루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도출하는 것이 더 객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벤틀란트가 사용하는 절정(peak)이라는 말도 어떤 경우에는 극적인 절정이라고 했다가, 다른 곳에서는 주제적 절정,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주제적 핵심으로 말하여 혼동을 준다.

끝으로 3장은 성경 번역자를 위해 5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단락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신호들을 수용언어 사용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번역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대명사를 사용할 때 그것들이 누구를 지칭하는지 명확하게 번역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메시지의 절정을 이루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수용언어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표현들을 삽입해야 한다는 것이다.⁹⁾ 넷째, 성경 본문의 청각적인 효과를 반영하는 번역이 이루어져

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나훔서의 경우 시대적 상황을 수용언어 사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각주와 같은 장치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2.4. 제4장: 학개서의 수사학

4장에서 벤틀란트는 수사적 분석은 본문의 구성적 형태(특히 단락 구조)에 나타나는 수사적 특성들을 주목하여 예언자의 중심 주제들(major themes)이 무엇인지를 관찰하고, 그것을 통해 독자에게 충격을 주어 설득하는 수사적 기능을 파악하는 것이라고 다시 정리하며 시작한다.

4장에서 그는 인클루지오와 같은 수사적 장치들을 주목하여 학개서의 단락 구분과 단락 구조를 제시하고, 각각의 단락에서 절정이 어디에 있는지를 설명한다. 예를 들어 2:1-9에서 절정은 가운데에 있는 2:4에 있다고 말하고, 그 근거로 아이러니와 구문론적 특성을 언급한다. 하지만 또 다른 곳에서 그는 2:1-9의 핵심은 2:9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 확실히 본서에서 말하는 메시지의 절정의 정의는 애매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벤틀란트는 학개서의 구조는 동심원 구조를 이루면서, 동시에 주장(thesis)-반대(counter-thesis)-재반박(supporting argument)이라는 주기(cycle)가 3번 반복되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수사적 구조는 다방면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깨워준다. 그 외에 그는 학개서에 사용되는 다양한 수사적 특징들을 많은 지면들을 할애하여 설명한다.

끝으로 학개서의 수사적 특성을 고려할 때, 성경 번역자는 담화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도록 단락과 구절이 바뀔 때 적절한 연결사를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래서 단락 제목, 소단락의 제목, 난외주의 사용, 그리고 필요하면 삽화 등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더 나아가 번역본의 서식 체계(format)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벤틀란트는 성경 번역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성경 번역의 목표는 다른 언어의 형태와 다른 문화적 세계의 인식 틀을 사용하여, 가능한 원문에서 표현되고 직접적으로 의도된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이다.”¹⁰⁾ 이를 위해서 원문이 담고 있는 의미에 상응하는 숙어적 표현들을 수용언어에서 찾아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9) 성경에서 메시지의 절정을 알리는 수단은 어휘의 반복, 이미지의 사용, 어순의 변화, 음성학적 기교, 압축적인 표현(예를 들어, asyndeton) 등이 있다.

10) Ernst R. Wendland, *Prophetic Rhetoric*, 127.

2.5. 제5장: 요나서의 수사학: 아이러니와 수수께끼

5장은 요나서가 반복(recursion)과 변화(variation)를 통해 어떻게 독자들을 설득하는지에 주목한다. 요나서 안에는 음성학적으로 어휘적으로 많은 반복이 이루어진다. 한 예로 ‘크다’라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요나서 전체에서 반복되는데, 이 단어는 4:10에서 시든 박넙쿨을 표현할 때에 사용된다(“크지 않게 된 박넙쿨”). 벤틀란트는 동일한 단어의 반복은 이 대목에서 큰 도성인 니스웨를 비교시킨다고 지적한다. 요나서에서 가장 빈번히 나타나는 반복은 기도하는 모습이다. 요나서 안에서 선원, 니스웨 사람, 그리고 요나가 기도하는 모습이 계속적으로 반복된다. 그 외에도 요나서 1장에서 내려가다(נָתַן/“야라드”)라는 동사와 던지다(שָׁלַח/“틀”)라는 동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요나가 영적으로 타락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말한다(2:6 참조).

동일한 낱말의 반복은 단락의 경계를 알리는 신호로 기능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가 1:1-3과 3:1-3에서 반복되는 어휘들이다. 이 어휘의 반복을 통해 3장이 새로운 단락의 시작임을 알린다.

또한 반복과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는 변화(variation)를 통해 요나서는 독자들을 설득한다는 게 벤틀란트의 주장이다. 한 예로 1장에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전치사 “알”(כַּנְתִּים, against)을 사용하여 니스웨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에서 외칠 것을 말씀하신다. 하지만 3장에서는 전치사 “엘”(עַל, for)을 사용하여 니스웨를 향하여 단순히 외칠 것을 말씀함으로써 니스웨가 어느 정도 회개하면 소망이 있음을 암시한다. 이런 약간의 차이는 독자에게 본문의 의미를 새롭게 포착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본문의 수사적 의미와 관련해서 중요한 힌트를 제공하는 변화라는 수사적 장치는 어휘뿐만 아니라 구문론에서도 일어난다. 구문론과 관련해서 주목할 부분은 어순의 도치다. 요나서는 처음과 끝이 와우 계속법으로 사용된 와우에 미완료 형태가 결합된 형태가 내러티브의 흐름을 이끈다. 이런 가운데 종종 동사 앞에 명사가 도치되는 변화를 통해 단락의 시작, 메시지의 절정, 또는 강조점을 알린다(2:4 참조). 어순의 도치는 전치와 후치로 나누어지는데, 종종 어순의 도치는 단락의 끝을 알릴 수도 있다는 게 벤틀란트의 설명이다. 한 예로 4:11에서 가축이 뒤로 후치되어 단락의 끝을 알린다.

변화는 시간의 흐름을 끊고 갑자기 연대순이 바뀌는 시간의 도치에서도 발견된다. 그래서 벤틀란트는 요나서 4:3-4에서 죽기를 구하는 요나의 기도는 4:5-10에서 요나가 박넙쿨 그늘에 앉았던 다음에 일어난 상황이라고 말한다. 이런 변화는 4:11에서 하나님의 논쟁을 부각시키려는 수사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결론적으로 벤틀란트는 반복과 변화라는 수사적 기법은 단락의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힌트로 기능할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단락 안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어휘들은 그 단락의 응집력(bonding)을 높여주는 기능도 한다고 설명한다. 더 나아가 반복과 변화는 극적인 절정, 주제적 핵심, 그리고 클라이맥스(주제적 절정)를 알려주는 신호의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 물론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극적인 절정과 주제적 핵심, 그리고 클라이맥스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어쨌든 벤틀란트의 주장에 의하면, 반복(예를 들면 동사와 상응하는 동종 목적어의 사용 등, 1:10, 16 참조)과 변화(예를 들면 어순의 도치 등)를 통해 본문의 저자가 자신의 메시지를 전면에 부상시킨다는 것이다. 더욱이 반복과 변화라는 수사적 기법은 독자로 하여금 본문의 인물의 특성을 보여주는 장치라고 말한다. 가령 요나서 2:9에서 요나가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겠다고 말하면서 실행에 옮기지 않는 모습은 1:16에 제사를 드리고 서원하는 선원들의 모습과 크게 대조되어 요나의 부정적 인물됨을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

이어서 벤틀란트는 반복과 변화는 아이러니(irony)라는 수사적 특성을 동반한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요나서에서 어휘나 행동이 반복될 때, 해당 인물의 아이러니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이런 아이러니의 수사적 기능은 결국 유머와 함께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케 하여 독자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특별히 요나서에서 아이러니는 요나서의 핵심 메시지를 부각시키는 기능도 한다. 또한 요나서에서 반복과 변화는 수수께끼(enigma)라는 수사적 특성도 갖는다. 반복과 변화를 통해 요나서는 독자에게 계속 놀라움을 안겨주기 때문이다. 이런 수수께끼의 기능은 결국 요나와 같은 인물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교훈하는 수사적 기능이 있다.

끝으로 벤틀란트는 성경 번역자는 원문의 문학적 특징들을 수용언어에 그대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런 제안은 요나서의 경우, 어휘의 반복과 변화 등을 수용언어의 독자층들이 볼 수 있도록 성경 번역자가 얼마나 단어 선별에 신경을 써야 하는지를 일깨워준다. 그러므로 성경 번역자는 수용언어의 독자층이 원문의 예술성과 수사적 기능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번역 작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벤틀란트는 이런 번역 방법을 “문학적으로 기능적으로 대응되는 번역”(literary functional equivalence)이라고 명명한다.

2.6. 제6장: 에스겔서의 수사학: 에스겔 33-37장

6장에서 벤틀란트는 에스겔 33-37장이 왜 한 단락으로 묶이는지를 고찰하며 시작한다. 우선적으로 에스겔 33장은 의미의 흐름에서 반전을 이루는 장이고, 34-36장은 주제적 절정, 그리고 37장은 감정적 클라이맥스를 이룬다고 말한다. 그리고 32장과 38장에 “메섹”과 “두발”이라는 표현은 33-37장을 위해 *exclusio* 구조를 이룬다고 지적한다(38:2; 32:26).

에스겔서의 전체 구조와 관련해서 벤틀란트는 에스겔 1장의 복잡하고 혼란스런 신현 장면은 포로로 잡혀간 유다의 상황을 상징화하는데, 이것은 에스겔 40-48장에서 성전으로 특징짓는 정온한 땅의 묘사와 대조된다고 말한다. 그리고 에스겔 25-32장에서 7개의 이방나라에 대한 심판 신탁은 에스겔 38-39장에서 곡과의 전투에서 7번 주어지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균형을 이룬다고 말함으로써, 7이라는 숫자를 통한 수사적 기교에 주목한다.

본문의 의미는 단락의 구조와 단락들 간의 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는 전체 속에서 단락의 구조를 정하는 문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강조한다. 예를 들어 벤틀란트는 에스겔 33장은 A(2-11절)-B(12-20절)-C(21-22절)-B'(23-29절)-A'(30-33절)라는 동심원 구조를 갖는데, 이 구조에서 가운데를 이루는 21-22절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보고가 에스겔 33장의 핵심을 이룬다고 제시한다. 이 장의 단락 구분에서 그는 단락의 끝을 이루는 29절과 33절에 단락의 끝을 알리는 신호인 *epiphora* 현상을 포착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33:33에서 “오다”(אָבַח/“보”)라는 동사를 사용하여 “그 말이 응할 것이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미래의 희망을 암시하는데, 이것은 오직 진정으로 악에서 돌아온(אָבַח/“보”) 사람들에게만 미래의 희망이 있음을 암시하는 수사적 기교라고 이해한다.

37:1-14는 단락의 시작을 두어반복(*anaphora*)이라는 장치를 사용하여 알린다고 말한다(1:3; 8:1; 40:1 참조). 또한 이 단락은 초두와 말미에 비슷한 어구가 나타나서 수미쌍관(*inclusio*)을 이룬다고 지적한다. 벤틀란트는 다시 37:9-10은 극적인 절정, 그리고 37:11-14는 주제적 클라이맥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절정과 클라이맥스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다소 애매하다. 끝으로 33-37장이라는 대단락 구조에서 37:20-28이 주제적 절정을 이룬다고 말하는데, 그 근거가 약간 모호하다.

마지막 부분에서 벤틀란트는 성경 번역은 단순한 문자적 번역이 아니라 원문의 문학적·예술적 특성과 수사적 기능(음성학적 기교 등)을 살리는 웅변적 번역(*oratorical*)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것은 마치 에스겔 37장의 말씀처럼 마른 뼈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에 비유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원문의 배경을 수용언어 독자층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본문외 장치들(각주 등)에 관

심을 가질 것을 제안한다.

2.7. 제7장: 하박국서의 수사학

7장에서 벤틀란트는 하박국 2:4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하박국서 내용의 핵심이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하박국서 전체의 본문이 완성되었기에, 이 구절은 하박국서의 목적의 토대가 된다고 주장한다. 하박국서 본문은 내용이 진전되면서 응집력을 보여준다고 말한다. 따라서 그에 의하면 하박국서의 주요 수사적 특징은 진전(progression)과 응집(cohesion)이라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하박국서는 전반부(1:1-2:1)와 후반부(2:2-3:19)로 나뉜다. 벤틀란트는 동심원 구조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하박국서를 다음과 같은 동심원 구조로 본다: A(1:1)-B(하박국의 불평, 1:5-11)-C(바벨론에 관한 하나님의 응답과 하박국의 두 번째 불평, 1:12-17)-D(하박국의 관망, 2:1)-D'(하나님의 대답, 2:2-5)-C'(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2:6-20)-B'(하박국의 찬양시, 3장). 여기서 벤틀란트는 2:2-5를 한 단락으로 이해했는데, 이것은 2:5에서 새로운 단락이 시작한다고 주장하는 다른 주석책들과 차이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2:4-5는 단락의 끝과 함께 단락의 시작을 알리는 이중적 기능을 한다고 말하며 문제를 피해간다. 그는 하박국의 시인 3장도 동심원 구조를 이루며 거기서 핵심은 야훼의 구원을 강조하는 3:8-15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 벤틀란트는 하박국서 전체는 동심원 구조와 같은 수사적 구조 외에 발단-전개-절정-해결이라는 내러티브의 진전 구조를 가진다고 말한다. 여기서 절정을 이루는 부분은 2:20(“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에 있다고 주장한다. 진전 구조는 하박국서의 논쟁적 흐름에서 발견할 수 있고, 신정론 문제와 관련해서 1장의 문제제기를 3장에서 답하는 구조에서도 드러난다고 주장한다. 이런 진전 구조와 함께 본문의 응집성을 보여주는 어휘들의 반복에 주목한다. 이런 반복은 단락을 구분하는 데에 도움을 주거나, 본문의 특정 내용을 돋보이게 하는 효과, 또는 단락의 응집성(구문론적 응집성과 의미론적 일관성)을 높여 주는 기능을 한다고 말한다.¹¹⁾ 이런 반복은 어휘의 반복뿐만 아니라 유사한 소리의 반복의 형태

11) 벤틀란트는 응집성(cohesion)이라는 말을 구문론적 응집성(syntactic cohesion)과 의미론적 일관성(semantic coherence)을 아우르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한다. 또한 의미론적 일관성을 위해서 어휘의 반복을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해서 벤틀란트는 의미론적 일관성을 외형적 단어 형태의 반복에서 찾기 때문에 형태론적 입장에서 일관성을 찾는다. 하지만 텍스트 언어학에서 의미론적 일관성은 단어의 의미가 전체 주제에 유기적 통일성을 이룬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로도 나타난다(2:18절에서 하나님과 우상의 대조 등).

벤틀란트는 하박국서의 진전과 응집이라는 수사적 특성을 통해 드러난 핵심 메시지는 신실한 자들이 야훼의 자비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는 데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하박국 2:4가 전체의 핵심 메시지라는 주장에 무게를 실어준다. 서평자는 벤틀란트의 기본 주장에는 동의하지만 구체적으로 진전과 응집이라는 수사적 특성을 통해 논리적으로 어떻게 하박국 2:4가 주제적 핵심인지 보여주는 데에는 다소 실패했다는 느낌이다.

끝으로 벤틀란트는 성경 번역자가 수용언어의 독자에게 원문의 주제적 핵심 내용과 수사적 기능(독자에게 주려는 영향)을 그대로 전달해 주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번역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그래서 본문의 핵심 내용, 스타일, 그리고 수사적 특징뿐만 아니라 하박국서에서 다른 성경 내용을 암시하는 부분(intertextual allusion)도 독자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번역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단락의 시작을 수용언어에서 보여주기 위해 연결어와 같은 본문 내의 표시(intra-textual marker)를 번역자가 삽입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2.8. 제8장: 스바냐서의 수사학

8장에서 벤틀란트는 스바냐서의 담화 구조에 주목한다. 단락의 구조를 위해 사용되는 수사적 장치를 이 장에서는 다른 장에 비해 더 자세히 설명한다: 수미쌍관(inclusio) 구조, 익스클루지오(exclusio) 구조,¹²⁾ 두어 반복(anaphora), 결구 반복(epiphora), 전사 반복(antadiplosis), 교차대구(chiasmus) 구조, 테라스(terrace) 구조, 반사(reflection) 구조.¹³⁾ 이것들을 종합해서 벤틀란트는 스바냐서의 전체 구조는 동심원 구조를 이룬다고 말한다: A(1:1-6)-B(1:7-18)-C(2:1-3)-D(2:4-15)-C'(3:1-7)-B'(3:8-13)-A'(3:18-20). 이와 같은 구조를 볼 때, C 단락에서 말하는 공의를 행하는 겸손한 자는 C' 단락에서 묘사된, 하나님의 의로움을 철저히 인식하는 자임을 알 수 있다.

끝으로 벤틀란트는 성경 번역자는 단락 구조를 수용언어의 독자들도 느끼고 인지할 수 있는 번역을 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하면 단락 구조를 반영하는 인쇄기술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또한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진 3:8(열국의 심판)과 3:9(열국의 구원)가 어떻게 같은 단락 안에 묶어질 수

12) 익스클루지오 구조는 어떤 단락이 있을 때 그 단락의 이전과 이후에 동일한 어휘가 반복되어서 그 단락을 돋보이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13) 반사구조는 일명 궤널구조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가령 A-B-C-D//A'-B'-C'-D'처럼 앞의 내용이 연속해서 반복되는 구조를 가리킨다.

있는지를 각주를 통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서평자는 여기서 의문이 든다. 전체적으로 벤틀란트가 정한 스바냐서의 단락 구조에 동의하지만 3:1-7과 3:8-13으로 단락을 나눈 것에 대해서 동의하기 힘들다.

그 다음으로 벤틀란트는 앞에서 계속적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원문의 수사적 기능(독자에게 영향을 미쳐서 이끌어내려는 반응들)과 예술적 특성(심미적 아름다움을 통한 호소), 그리고 문학적 특징(수사적 장치들)들을 생생하게 반영하는 창조적인 번역(소위 웅변적 번역)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본문에 절정이나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부분을 돋보이게 하는 번역 장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9. 제9장: 말라기서의 수사학

9장에서 벤틀란트는 말라기서에 사용하는 수사적 장치들을 먼저 조명한다. 특별히 거시적으로는 단락 단위에서, 그리고 미시적으로 구절 단위에서 어떤 구조가 나타나는지를 파악하는 일은 본문의 의미를 밝혀 주는 데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한다. 그 예로 성경에서 난해 구절의 하나인 말라기 2:15에 대해 벤틀란트는 그 구절이 동심원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구조를 통해 의미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별히 단락의 끝을 알리는 신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준다. 즉 단락의 끝에서 접속사 없는 문장(asyndeton), 생략(또는 축약), 은유적 표현, 어순의 도치 등이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그리고 어순의 도치는 강조점이 앞으로 전치되거나 뒤로 후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일깨워준다(말 4:4).¹⁴⁾

다음으로 벤틀란트는 말라기서는 선언-백성들의 반대-하나님의 반응-백성들의 행동이 갖는 함의라는 논쟁적 패턴이 6주기로 반복되는 선적 구조를 가지면서, 동시에 동심원 구조를 이룬다고 말한다. 동심원 구조의 장점을 다음과 같이 그는 열거한다.¹⁵⁾ 첫째, 말라기서의 본문의 응집성을 높여준다는 데에 있다. 둘째, 말라기서의 단락들을 서로 대칭되는 단락과 연결시켜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A/A', B/B' 등). 셋째, 동심원 구조는 독자들에게 본문의 내용을 쉽게 기억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¹⁶⁾ 벤틀란트에 의하면, 동심원 구조에서 주제적(또는 화용론적) 강조점은 중앙에 있지만 때때로 마지막 부분에도 올 수 있다고 설명한다.¹⁷⁾ 왜냐하면 본문의 구조가 동심원 구조뿐만 아

14) Ernst R. Wendland, *Prophetic Rhetoric*, 357.

15) 동심원 구조(concentric structure)란 일종의 교차대구 구조를 확장한 것으로, 예를 들면 A-B-C-D-(D')-C'-B'-A'와 같은 패턴을 지칭한다.

16) Ernst R. Wendland, *Prophetic Rhetoric*, 366.

나라 다른 구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동심원 구조로 말라기서를 읽을 때 핵심은 중앙에 위치한 2:10-16이고, 이런 점에서 2:10-16이 예언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어서 신학적 절정은 그 다음에 위치한 2:7-3:5로서 언약의 사자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한다. 여기서 예언의 절정과 신학적 절정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벤틀란트가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쉽다. 벤틀란트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침묵한다.

끝으로 벤틀란트는 말라기서의 수사적 특징을 토대로 성경 번역자는 원문의 단락 경계와 절정을 표시하기 위해 수용언어에서 단어들을 첨가하거나 어순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서식의 중요성을 다시 언급한다.

2.10. 제10장: 오늘날 예언서의 수사적 특징들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마지막 10장에서 벤틀란트는 번역에서 전달 매체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효과적인 전달 매체의 사용은 원문의 수사적 특징과 기능을 오늘날의 상황에서 생생하게 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한다. 이것을 그는 “상황화”(contextualization)라고 말한다.

벤틀란트는 스바나서를 일종의 드라마, 또는 상연(performance)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지만 어쨌든 성경 원문은 단순한 글이 아니라 드라마틱한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역자는 이런 요소들을 반영하는 번역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한다. 더욱이 성경 원문은 원래 청중들에게 소리로 호소하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음성학적 특징들을 생생하게 재연할 수 있는 구술적-청각적(oral-aural)번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수용언어에서 추가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절정을 이루는 부분을 강조할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여기서 번역자가 과도한 추가적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본문의 화자(예를 들어 야훼)의 품격을 떨어뜨린다면 오히려 역효과라고 경고한다.

원문의 드라마틱한 음성학적 요소들을 수용언어로 표현할 때, 다양한 전달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래서 CD나 MP3 등을 사용해서 번역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더 나아가서 비디오 제작을 통해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원문의 수사적 특징들을 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상황화를 고려한 성경 번역은 현대어를 사용하는 청중들이 성경 원문에서 의도된 핵심 내용과 수사적 기능을 그대로 느끼고 체

17) Ibid.

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원문이 의도한 도전과 변화를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3. 평가

본서는 올바른 성경 번역을 위해 텍스트 언어학에 입각해서 본문을 분석할 것을 강조한다. 특별히 예언서는 잘 짜여진 외형적 형태(구문론적 형태와 단락의 구조의 형태를 통한 응집성)를 매개로 해서 독자에게 어떤 의사소통의 효과(일명 수사적 기능)를 추구하는 책이라는 전체 속에서 논의를 전개한다는 특징이 있다. 성경 원문은 독자에게 내용을 전달하여 독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유도하도록 하는 책이기에, 성경 원문의 외형적 형태는 수사적 기능을 위한 수사적 장치들로 가득 차 있다는 지적은 오늘날 성경 번역자가 반드시 수용해야 할 부분이다.

본서가 말하는 수사적 장치들 중, 본문의 외형적 형태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수사적 장치는 단락 구분과 단락의 구조다.¹⁸⁾ 책의 수사적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책의 단락의 경계를 구분하고, 개개 단락의 문학적 구조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단락 구분과 그것의 문학적 구조는 원문의 주제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메시지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그래서 본서의 장점은 단락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수사적 장치들을 열거하고, 각각의 장에서 예언서가 어떤 단락으로 구성되는지를 실질적인 예를 들어 설명한다는 데에 있다. 이렇게 해서 주관적 판단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의해서 단락을 구분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단순히 한 권의 책만을 가지고 예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여러 권의 책들을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풍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런 방식을 통해 성경 번역자들에게 성경의 원문은 책마다 독특한 방식으로 단락의 구조가 정해진다는 것을 함께 보여줌으로써 기계적으로 단락을 구분하지 (demarcation) 말 것을 일깨워 준다.

단락의 경계와 함께 단락의 구조를 정할 때, 가장 중요한 수사적 장치는 어휘의 반복이다. 어휘의 반복은 단락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inclusio, anaphora, epiphora, anadiplosis 등). 그리고 어휘의 반복은 단락의 특정 부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서 메시지의 절정(또는 클라이맥스)을 가리

18) 여기서 말하는 단락의 구조는 전체 단락들이 어떤 구조로 연결되는지를 말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단락 안에 내용들이 어떤 구조로 배열되어 있는지를 가리키는 용어다.

켜 주는 기능도 한다. 어순의 도치(verbal shift)와 접속사 없는 문장(asyndenton)은 단락의 시작과 끝을 알릴 수도 있다는 게 본서의 주장이다. 또한 본서는 평행법과 은유적 이미지, 어순의 도치, 압축적인 표현(예를 들어 접속사 없는 문장인 asyndenton) 등과 같은 수사적 장치들이 집중적으로 사용되어 어떻게 메시지의 절정을 보여주는지도 설명함으로써, 다양한 수사적 장치의 기능들을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더욱이 본서의 놀라운 통찰 중에 하나는, 단락의 구조는 동심원 구조와 함께 직선 구조를 혼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동심원 구조에서 핵심은 가운데이지만 직선 구조에서 핵심은 마지막 부분이기 때문에, 동심원 구조와 직선 구조가 혼재된 단락에서는 핵심이 가운데와 마지막에서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독자들에게 깨우쳐 준다.

확실히 단락에서 나타나는 동심원 구조는 본문의 이해를 높여주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말라기 1:2-5는 동심원 구조로서 유다가 하나님의 사랑에 이의를 제기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구조상으로 보면 가운데 중심은 에돔이 회개하지 않고 황폐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교만한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말 1:4a). 이것은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각시키는 문맥에서 매우 생똥맞다는 느낌이다. 하지만 에돔의 행동이 중앙에 위치한 것은, 에돔이 하나님의 사랑과 교훈을 거부하고 환난을 당한 후에도 계속 회개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강조하여, 포로의 환난을 겪은 포로후기 유다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거부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에돔이 당한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한 저자의 수사적 의도 때문이다. 이런 통찰은 확실히 구조 분석을 통해서만 찾아낼 수 있다.

또한 본서는 외형적인 형태와 구조뿐만 아니라 본문의 저자가 청중들에게 본문의 핵심적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려고 했는지를 보여주려고 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여기서 서평자가 보기에 아쉬운 점은 본문의 핵심 내용을 화행론(speech act theory)을 근거로 해서 본문의 저자가 청중(독자)에게 전달하려는 격려, 위로, 심판 선고, 희망 제시 등으로 제한시킨다는 것이다. 텍스트 언어학에서 의미론적 일관성은 단어의 의미들이 특정 주제에 어떻게 기여하고, 다시 주제들은 서로 어떻게 통일된 주제적 네트워크를 이루어 독자를 설득하는지에 그 주안점이 있다.¹⁹⁾ 하지만 본서는 전통적인 텍스트 언

19) 그래서 피터 코터넬(Peter Cotterell)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답화의 특성들을 고려할 때 우리는 내러티브의 주석은 문법과 구문론의 문제뿐만 아니라 텍스트의 특질과 특별히 텍스트의 구조와 주제적 네트워크의 문제를 살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Peter Cotterell, “Semantics, Interpretation, and Theology”, Willem A. VanGemeren, ed., *A Guide to*

어학에서 말하는 의미론적 분석보다는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본문의 외형적인 형태와 구조를 통해 찾으려고 한다. 그래서 단어의 의미(sense)를 단어의 형태론적 시각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의미론적 일관성보다는 형태적인 일관성을 뜻하는 응집성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는 인상을 준다. 이런 불균형은 본서의 저자가 다양한 해석 방법론을 나름대로 융합시켜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어쨌든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알리는 수사적 장치로서 반복과 변화라는 수사적 특징과 이미지의 사용을 설명하는 부분은 매우 인상적이다. 그래서 반복(recursion)과 변화(variation), 그리고 이미지 사용이라는 수사적 장치를 통해 본문의 저자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독자들에게 강하게 제시한다는 본서의 주장은 성경의 수사적 이해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준다.

본서는 문학적 구조와 기타 다른 수사적 장치들이 메시지의 절정을 어떻게 보여주고 내용상의 핵심을 어떻게 전달하는지를 제시하는 데에서 만족하지 않는다. 이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본서는 그런 수사적 장치들이 독자들에게 어떤 반응을 유도했는지에 관한 수사적 기능에도 깊은 관심을 갖는다. 특별히 독자에게 충격을 주고, 거기서 어떤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본문은 심미적인 표현을 통해 호소하였으며, 음성학적 기교를 통해 독자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다는 게 본서의 주장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본서는 성경 번역자가 성경 원문을 수용언어로 번역할 때 어떤 점을 유의할 지에 대해 몇 가지 귀중한 통찰을 제공한다. 첫째, 성경 번역자는 단락의 경계와 메시지의 절정, 그리고 내용의 핵심을 수용언어의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번역본 안에 단락의 경계를 알리는 제목, 강조어(예를 들면 “실로”), 그리고 연결어 등을 삽입할 것을 제안한다. 확실히 이 점은 오늘날 성경 번역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하는 부분이다. 무엇보다도 단락의 구조를 볼 수 있는 번역작업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대단락이든 소단락이든 그 단락이 동심원 구조(A-B-C-D-C'-B'-A')를 이룰 때, 그 구조를 어느 정도 수용언어에서 알아볼 수 있도록 힌트를 준다면, 수용언어의 독자들은 동심원 구조를 파악하여 서로 대칭이 되는 부분들(예를 들면 A/A', B/B')을 연결하여 본문을 더욱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본서는 성경 번역을 위해서 원문의 어휘의 반복 현상에 주목할 것을

Old Testament Theology and Exegesis (Grand Rapids, Mich.: Zondervan, 1997), 152-153. cf. de Beaugrande and Dressler, *Introduction to Text Linguistics*, 94. 여기서 드 보그랑드(de Beaugrande)와 드레슬러(Dressler)는 의미론적 일관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일관성은 주요 주제들로 이루어지는 네트워크 속으로 여러 개념들과 그 관계들을 하나로 결합시킨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권고한다. 본서에 의하면, 어휘의 반복이라는 수사적 장치는 단락의 경계뿐만 아니라 내용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성경 번역자는 수용언어로 원문을 번역할 때, 단어선택을 임의적으로 변경하지 말고, 일관성 있게 사용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경 번역과 관련해서 본서가 주는 통찰은 본문의 저자는 미적인 표현을 통해 독자에게 호소하고, 특별히 독자에게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음성학적 기교를 사용하여 충격을 가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반영하는 성경 번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원문의 이런 효과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수용언어에서 적절한 표현들을 찾아 번역할 것을 제안한다. 원래 성경 원문은 청각적으로 청중에게 들려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각적 효과를 위해 성경 번역자가 세심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확실히 본서는 번역에 앞서 원문의 수사적 장치들에 민감해야 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성경 번역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단락과 구조, 그리고 여러 가지 수사적 장치들이 함께 어울려져서 본문의 응집성을 높이고, 이것을 토대로 독자에게 핵심 내용을 전달하고 독자를 설득하기 때문에 성경 번역자는 이런 수사적 특징들에 주목하고, 수용언어에서 그런 특징들을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시간적으로 그리고 공간적으로 떨어진 성경 원문이 다시 생생하게 부활되어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똑같은 감흥과 충격을 줄 수 있다. 이는 벤틀란트가 언급한 것처럼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가 다시 생명을 얻어 부활하는 감동에 비견된다.

성경 원문은 종종 자극적인 은유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독자들을 설득하는데, 성경 번역자가 그 이미지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번역한다면 오늘날 독자에게는 별로 감동을 줄 수 없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벤틀란트에 의하면 은유적 이미지가 집중될 때 그것은 메시지의 절정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에, 성경 번역자는 은유적 이미지가 나올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 때 성경 번역자는 수용언어에서 그 이미지에 상응하는 표현을 찾아서 수용언어의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여의치 않는다면, 각주를 활용하여 성경의 이미지가 오늘날 어떻게 환원되는지에 대해 설명을 덧붙일 수 있다. 그리고 이미지가 나오는 부분이 메시지의 절정일 때, 그런 힌트를 수용언어의 번역본에 표기하거나 각주로 알릴 수 있을 것이다.

본서에서 아쉬운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첫째, 앞에서 간헐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본서에서 말하는 단락의 경계는 모두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단락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수사적 장치로서 두어 반복(anaphora)이나 결구 반복(epiphora)이 단순히 우연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주의하지 않

는다. 대단락에서 사용되는 두어 반복(anaphora)을 소단락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단락의 규모에 맞게 어휘의 반복을 통해 본문의 저자가 단락의 시작을 알린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둘째, 주제적 절정, 감정적 클라이맥스, 또는 주제적 핵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그런 표현들을 사용하는지가 매우 모호하다. 단락의 구조가 메시지의 절정을 보여준다고 할 때, 동심원 구조에서는 가운데, 그리고 패널 구조에서는 마지막 부분에 핵심이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주제적 절정, 클라이맥스라는 말을 사용하여 전혀 다른 부분에 절정들이 나온다고 말함으로써 읽는 독자에게 혼동을 준다. 앞으로 이점은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셋째, 수사적 장치들을 본문의 외형적 형태와 구조에만 국한시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단어의 역동적 의미와 단어의 의미들이 어떻게 주제를 이루고, 더 나아가 주제적 네트워크를 이루는지에 소홀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넷째, 본서의 기술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우선적으로 본서는 매우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어휘들을 사용하여 독자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다. 또한 본서의 구성은 각 장마다 같은 내용을 불필요하게 반복한다는 단점이 있다. 더욱이 몇몇 군데서 오타가 발견된다.²⁰⁾ 마지막으로 본서는 번역본의 서식 체계(format)의 중요성을 역설했는데, 본서의 서식 체계도 독자가 읽기 쉽게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책의 부피와 활자의 크기가 읽을 때 많은 애로를 주었다.

이상의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본서는 예언서의 수사적 장치들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매뉴얼로서 충분히 기능하고 있고, 성경 번역에 많은 통찰과 혜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쁘게 본서를 추천하는 바이다.

<주제어>(Keywords)

성경 번역, 예언서의 수사학, 문학적 구조, 수사적 기능, 음성학적 특질들.
Bible translation, Prophetic rhetoric, Literary Structure, Rhetorical function, Phonological features.

(투고 일자: 2013년 3월 18일, 심사 일자: 2013년 3월 25일, 게재 확정 일자: 2013년 4월 1일)

20) Ernst R. Wendland, *Prophetic Rhetoric*, 383. “The aim it to …” 이 문장은 “The aim is to …”로 교정해야 한다.

<Abstract>

***Book Review-Prophetic Rhetoric: Case Studies in Text Analysis
and Translation***

(Ernst Wendland, Xulon Press, 2009)

Prof. Changdae Kim
(Anyang University)

This work by Ernst R. Wendland has attempted to make a discourse analysis of nine books from the prophetic books, one from the Major Prophets and eight from the Minor Prophets,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Bible translators with some insights as to how to communicate the rhetorical impacts of the text to the audiences of modern day. The main arguments of this work ar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literary structure and form are inherent parts of meaning,” as Dr. Lynell Zogbo notes.

With the contributions of text linguistics in mind, this work has explored the ways that a text has its textual cohesion and semantic coherence in order to impact its audiences. In this regard, the chief attention of this work has been devoted to the literary forms and structures of prophetic discourses. This work successfully demonstrates how the literary structures and forms of the text facilitate our understanding of its major themes. In particular, it is convincingly argued that diverse rhetorical devices for demarcation and bonding help the reader to distinguish the constituent parts of the text, and then to uncover its thematic peaks and evocative climaxes.

What is noteworthy in this regard is that this work provides a detailed explanation of the rhetorical devices such as aperture and closing signals, metaphor, verbal shift, direct speech, rhetorical question, and so on. Wendland focuses his special attention on the rhetorical features of recursion and variation, with the result of arguing that those devices enable the author to demarcate the text and to bring the attention of the audience to the central content of the text. He goes on to make a case that the sound effects of a text has an important rhetorical function because they add excitement and emphasis to the text when it impacts the audience.

On the basis of the above insightful observations, this work has come up with several suggestions that have to do with Bible translation. The main suggestion

is that Bible translators should make every effort to transfer all the rhetorical effects of the text into their target languages by means of contextualizing the original text. To borrow the words of Wendland, this way of translating produces a “literary-oratorical version” which is relevant to the audience of today.

In my view, there are some areas in which this work should be improved. First, this work does not provide sufficient explanation of some key terms like thematic peak, thematic nucleus, and climax. As a result, the line between those terms is blurred in such a way that we cannot see the criteria by which the terms are defined. Second, due to its preoccupation with the forms of the text, it seems to me that this work focuses too much on textual cohesion so that it displays little interest in the way meanings of words form a thematic network (or semantic coherence) within the whole text in an effort to persuade the audience.

Despite these limitations, it is true that this work contributes much to drawing out the operations and functions of rhetorical devices of the text, and more importantly, it presents a vivid picture of how Bible translators should communicate the rhetorical effects of the original text in their target languages.